

선거 막판, 박빙 속 여야 대표 거친 '입'

한동훈, 조국 겨냥 "설마 하다 히틀러가 권력 잡아"

이재명 "자식 귀하다고 '괜찮다' 하면 살인범 돼"

4·10 총선 본투표일이 다가오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이 거칠어 지고 있다. 여야 수장들은 상대방을 심판 대상으로 규정하며 막말 공세를 퍼붓고 있다.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을 노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충남 아산 윤양온천시장 유세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히틀러가 권력 잡을 당시 '저런 우스꽝스런 얘기하는 사람이 권력 잡겠어' 하고 비웃는 분위기가 많았다"며 "(그렇지만) 기존 권력에 대한 염증 때문에 그 분위기에 편승해 설마 설마 하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다"고 했다.

또한 그는 막말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준현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에 대해 "백락도 안맞게 무조건 깔대기식으로 음담패설을 내놓고 억지로 듣게 하고 듣는 사람 표정 보고 즐기는 것"이라며 "성도착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이 대표를 겨냥하면서 "이 대표는 늘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며 "왜 굳이 삼겹살 안 먹고 먹은 척 하나, 그래야 할 이유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거친 발언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계속됐다.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희plex 앞 유세에서 "정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

꿀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거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일 부산 연제지원 유세 현장에서 이 대표를 향해 "이 대표는 정작 그런 쓰레기같은 욕설을 한 형수나, 정신병원에 보낸 형님한테 아무런 사과를 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조 대표를 향해선 "죄를 짓고 처벌받고 난 다음에 사법 시스템에 복속하겠다고 정치하는 게 맞는 건가"라며 "왜 우리가 2024년에 이따위 정치를 봐야 하나"라고 각을 세웠다.

이재명 대표도 한 위원장과 경쟁하듯 연일 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강남을 유세에서 윤석열 정권을 '살인범이 된 귀한 자식'에 빗대어 한 표를 호소했다. 그는 "귀한 자식일수록 나쁜 짓을 하면 '애 그러면 안 된다', '아닌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도 때리고

그래도 안되면 더 엄하게 징계하고 책임을 묻고 혼을 내야 한다"며 "그래야 똑바로 자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귀하다고, 이쁘다고 오냐오냐 하면서 나쁜 짓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때리고, 훔치고 그런 것을 '아이고, 우리 자식이 귀하니까 괜찮아' 하면 살인범이 된다"며 "그게 자식을 키우는 세상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경기 하남읍 유세에서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 9주년 방송'이 결방된 데 대해선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고 "앞으로 이 상태가 계속되면 정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여러 차례 선거를 경험해 봤지만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이렇게 졸렬하게 선거를 임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뉴스

軍 정찰위성 2호가 발사 성공...지상과 교신

군 최초 SAR위성 확보로 감시정찰능력 강화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가 해외 지상국과 최초로 교신하면서, 2호기 발사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국방부는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한국시각 8일 오전 10시 57분경 해외지상국과 본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군사정찰위성 2호기는 이날 오전 8시 17분 미국 플로리다주의 케이프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다. 정찰위성은 발사 후 45분 만인 9시 2분경 발사체로부터 분리돼 목표궤도에 정상 진입했다.

우리 군은 발사 54분 만인 9시 11분경 해외지상국과 예비 교신을 시도했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10시 57분경 본 교신을 시도해 성공했다. 군은 발사 후 9시간 36분인 오늘 오후 5시 53분에 국

내 최초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2일 새벽 3시 19분경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첫 군사정찰위성인 EO/IR(전자광학/적외선)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바 있다.

2호기는 SAR(영상레이더)위성으로 레이더에서 전파를 발사해 반사돼 되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해 영상을 생성하는 군 정찰위성이다. 기상에 상관없이 주·야간 전천후 고해상도 영상 촬영 및 정보수집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번 발사 성공으로 확보되는 군 최초 SAR위성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더욱 강화됐다"며 "향후 후속 위성발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

조국 대표, 선거운동 마지막 날 광주서 유세

오늘 오후 4시 동구 총장으로 우체국사거리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광주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다.

8일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조 대표는 오는 9일 부산과 대구를 거쳐 오후 4시 광주 동구 총장로 광주우체국 사거리에서 선거유세를 한다.

조 대표 방문에 앞서 강경숙, 서왕진, 배수진 등 비례대표 후보들은 광주 곳곳을 돌며 '비례 9번 투표'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다.

조 대표의 광주 방문은 창당 이전까지 포함하면 올해 들어 네 번째

다. 지난 2월14일 국립5·18민주묘지, 3월14일 총장로, 3월30일 서구 풍양호수공원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조 대표는 광주 일정을 마치고 KTX편으로 상경해 서울에서 총선 마지막 선거운동을 한다.

은우근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광주뿐 아니라 전남과 전 북지역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도 함께 돌며 '비례 9번 투표'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다"며 "광주의 불씨가 전국으로 번져 여당에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선거혁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 1석만이라도" 큰절 호소

국민의힘 광주후보

국민의힘이 16년 만에 광주지역 모든 선거구에 후보들을 출마시킨 가운데 8명의 후보들이 광주 발전을 위해 단 1석만이라도 당선시켜달라고 큰절로 호소했다.

국민의힘 광주지역 후보 8명은 8일 오후 5·18민주광장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40년간 민주당 일당독점 구도를 깨뜨려야 광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후보들은 "민주당이 반대하고 안된다면 복합쇼핑몰 국민의힘이 해냈다"며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못했던 군공항 이전도 국민의힘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을 지지하면 광주의 미래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며 "광주가 발전하려면 대통령실과 중앙정부의 가고 역할이 필요하다. 적어도 국민의힘 1명 정도는 국회로 보내야 한다. 이것이 혁신이고 진정한 국민통합 정신이자 민주주의의 표본이다"고 강조했다.

후보들은 "부산은 18석 중 민주당이 3석, 경남은 16석 중 민주당이 3석이다"며 "광주가 선거 혁명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 이제 광주도 이익과 미래를 위해 생각하고 투표할 때이다"고 촉구했다.

후보들은 "광주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재를 키우는 것이다"고 밝혔다.

우편함 속 선거공보물 사라져

광주 북구 경위 파악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선거공보물이 사라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치에 나섰다.

8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북구 신용동행정복지센터로 우편함에 있던 선거공보물이 모두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한 한 이들은 신용동 한 아파트 입주자들로 총 5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북구는 관리사무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A씨가 우편함에서 선거공보물을 빼가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과거에도 수차례 아파트 우편함에 있는 고지서를 가져가 입주민들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는 공보물을 받지 못한 입주민을 위해 해당 아파트 경비실에 공보물을 다시 배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공보물 등을 탈취하거나 훼손하는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절하면서 지지 호소하는 국힘 후보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광주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8명의 후보자들이 8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합동유세를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뇌물·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정경유착" 징역15년 구형

검찰 "사법 방해 행위 반복인데... 중형선고 필요"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대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 3000여만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분단 현실에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증권기업 쌍방

울이 유착돼 저지른 대표적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3년에 걸친 장기간 스폰서였던 쌍방울 그룹 회장 김성태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적수행비서 급여 등 다양한 유형으로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 그 액수에 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북한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하는 자금이 됐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동원한 점 역시 죄질이 무거워 중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

에서 나타난 사법 방해 행위는 정의를 발견하고 확인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이러한 사법 방해 행위는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중형 선고가 필요할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이 끝나는 이 순간까지도 관련자를 회유하고 있고 객관적인 증거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며 검찰 회유로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스스로 진술한 사실을 뒤늦게 덮으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사회지도층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과 반성을 기대했으나 재판이 끝나는 이 순간까지도 반성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구형은 2022년 10월 이전 부지사가 기소된 지 1년 6개월만에 이뤄졌다. /뉴스

일자위대, 침략전쟁 미화... 대동아전쟁 언급

육상자위대 부대, SNS 엑스 공식 계정서 사용

일본 육상자위대의 한 부대가 침략전쟁인 태평양 전쟁을 미화하는 '대동아전쟁' 표현을 사용했다. 현지에서도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오미야 주둔지 제32보통과연대가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 공식 계정에서 대동아전쟁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부대는 지난 5일 엑스에서 올린 글에서 "32연대 부대가 대동아전쟁 최대 격전지 이오지마에서 개최된 일미(日美) 이오지마 전몰자합동위

령추도식에 자위대로서 참가했다"고 적었다. 이어 "조국을 위해 송고한 목숨을 바친 일미 쌍방 영령의 명복을 빌다"고 밝혔다. 추도식에 참석한 해당 부대의 사진 4장도 함께 올렸다.

이 부대는 아사히의 취재에 대해 해당 엑스 계정은 공식임을 인정하면서도 "오늘(7일)은 코멘트 할 수 없다"고 답하는 데 그쳤다.

8일 오후 2시30분 기준 대동아전쟁 표현은 수정되지 않고 남아있다. 일본은 1940년 미국, 유럽으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키겠다고 주장하

며 '대동아공영권 확립을 꾀하겠다'는 외교 방침을 내세웠다. 1941년 12월 개전 직후 각의(국무회의)에서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최고사령부(GHQ)는 대동아전쟁 호칭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국방장관은 8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사안을 '대동아전쟁'이라는 용어는 현재 일반적으로 정부 문서에서 사용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

국가공무원 육아시간, 자녀 8세까지

5세→8세로 확대... 사용기간도 24개월→36개월

하루 최대 2시간씩 자녀 육아에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5세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발표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이다.

우선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이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이는 일화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도 영유아가 못지 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사용기간 역시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사용기간은 1일 2시간으로, 유급휴가를 사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도 자녀 수에 비례해 확대된다.

그동안 자녀 돌봄 목적으로 이 휴가를 사용할 시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됐는데 앞으로 3자녀 이상 공무원은 1일이 더 가산된다. 예컨대 자녀가 3명이면 4일, 4명은 5일로 유급일수가 차등 부여된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연가 일수도 늘어난다.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비례해 부여된다. 현제 1년 이상~2년 미만 공무원은 12일, 2년 이상~3년 미만은 14일, 3년 이상~4년 미만은 15일의 연가를 받는다. /뉴스

순천(갑)후보들 "민주 김문수 자신사퇴하라"

"김문수 공짜숙소·차량 등 의혹" 제기... '혼탁 양상'

국회의원 총선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민주당 공천자인 김문수 후보가 고급차량과 숙박, 인력 등 불법으로 제공 받았다는 폭로가 또 다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형석, 진보당 이성수, 무소속 신성식 후보가 연일 더불어 민주당 김문수 후보의 원룸·차량·인건비 등 무상삼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거론하며 "재보궐선거를 방지하고 순천의 자존심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지지해달라" 호소했다.

특히 이성수, 신성식 후보는 "민주당이 선거구 확정 문제로 순천시민들의 주권을 빼앗고 무시하더니, 순천시민들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사퇴를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조준익 기자

도 지지 않았다"며 "누구라도 민주당 못만 입하면 그만이라는 오만함이야 하루이틀 일이 아니니 그렇다 치자"라고 일격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다가 차량과 숙소까지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민주당 김문수 후보가 암행어사라니, '박문수'가 가담키나 한가?"라고, 지하에서 암행어사 박문수가 벌떡 일어날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의 지기 기 위해 독재와 싸워온 호남 정신, 김대중 정신을 출세에 눈멀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탐욕으로 오염시키지 마라"며 "이제라도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과 순천시민들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사퇴를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조준익 기자